

파비아누



“한방으로 너를 꺾어주마”
브라질 vs 네덜란드 ‘혈투’

‘제2의 신의 손’ 논란을 낳은 브라질의 스트라이커 루이스 파비아누(30·세비야)와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는 ‘전통의 강호’ 네덜란드의 중원 해결사 베슬러이 스네이더르(26·인 터말란)가 준결승 진출의 문턱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삼바 축구’ 브라질과 ‘토틸축구’의 원조 네덜란드가 2일 (한국시간) 오후 11시 남아프리카공화국 포트엘리자베스 넬슨 만델라 베이 스타디움에서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8강전을 치르는 가운데 축구팬들은 파비아누와 스네이더르의 골 대결에 관심을 쏟고 있다.
현재 파비아누와 스네이더르는 각각 이번 대회에서 3골과 2골을 터트리며 팀의 8강 진출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장신 스트라이커 파비아누(183cm)와 단신의 공격형 미드필더 스네이더르(173cm)의 경기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지만 둘 다 오른발을 능숙하게 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파비아누는 최전방에서 동료의 패스를 받아 페널티지역에서 뛰어난 결정력을 자랑하는 반면 스네이더르는 2선 침

오늘밤 최고 킬러 맞대결

스네이더르



투를 바탕으로 정확도 높은 슈팅으로 골 그물을 가르는 능력이 탁월하다.
파비아누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준 경기는 코트디부아르와 G조 조별리그 2차전이다. 파비아누는 전반 25분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동료와 1대1 패스를 주고받고 나서 최종 슈비를 무너뜨리고 돌진해 골 지역 구석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

오늘밤의 월드컵
네덜란드 vs 브라질 <2일 23:00>
우루과이 vs 가나 <3일 03:30>

퍼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파비아누는 후반 5분에도 골키퍼의 골대를 받아 수비수 3명을 무력화하는 뛰어난 돌파와 개인기로 추가골을 터트렸다.
스네이더르는 일본과 조별리그 경기에서 후반 8분 페널티지역 왼쪽 부근으로 흘러나온 볼을 강력한 오른발 논스톱 슈팅으로 결승골을 만들어 16강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스네이더르는 슬로바키아와 16강전에서 1-0으로 이기고 있던 후반 39분 디르크 카우트(리버풀)의 크로스를 2선에서 달려들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2-1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이 때문에 이번 8강전에서 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뚫는 파비아누와 중원의 해결사로 파비아누의 1차 방어 역할과 함께 2선 침투로 골을 노리는 스네이더르의 대결은 그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MVP ‘캡틴 박’

국민 70% “월드컵서 가장 빛났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 중 국민이 뽑은 최우수선수(MVP)는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었다.
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51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0.4%가 박지성을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훌륭했던 선수로 뽑았다.
박지성은 전 연령을 통틀어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특히 30대에서 85.8%로 압도적인 사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용(22·볼턴)은 31.3%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올랐고, 19~29세 응답자는 평균보다 높은 52%의 지지를 보였다. 박주영(25·AS모나코)과 이정수(30·가시마), 이영표(33·알 힐랄)는 각각 19.6%, 13.4%, 12.9%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이 얼마나 역할을 잘 수행했느냐는 설문에 응답자의 48.8%는 ‘어느 정도 잘했다’를 뽑았고 ‘매우 잘했다’고 답한 이들은 38.2%에 달해 8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사는 지난달 29일 하루 동안 시도별 인구수에 비례해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4.3% 포인트다. /연합뉴스



허정무 감독 유임?

대한축구협회 내주 차기감독 논의

대한축구협회가 다음 주 기술위원회(위원장 이회택)를 열어 허정무(55) 감독의 후임 문제를 논의한다.
이회택 기술위원장은 1일 “이르면 7일, 늦어도 9일에는 기술위원회 회의를 열어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를 마무리하겠다. 아시안컵을 대비한 평가전 등 일정이 8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차기 사령탑 선임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허정무 감독 유임과 새로운 인물 영입 가능성이 팽팽한 분위기다.
허정무 감독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 출전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 쾌거를 이루며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조종원 축구협회 회장이 “경험 있는 국내 감독이 장기적으로 대표팀을 이끌 때가 왔다”며 허정무 감독의 유임론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했다.
특히 당장 내년 1월 아시안컵을 대비한 평가전이 8월1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령탑 선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론도 허정무 감독 유임 가능성을 높인다.
반면 허정무 감독은 유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최근에도 “다음 월드컵을 대비해 기반을 닦는 일을 하고 싶다”며 유소년 축구 전념에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홍명보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야게임에 와일드카드 쓰겠다”

홍명보(41)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올해 광주주 아시안게임 때 전력 보강 차원에서 ‘와일드카드’(나이와 상관없이 3명 출전)를 쓰기로 결심을 굳혔다.
홍명보 감독은 1일 “와일드카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일단 사용할 생각이다. 아시안게임 때 취약한 포지션에서 3명을 보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광주주 아시안게임과 2012년 런던 올림픽 사령탑을 겸임하는 홍명보 감독은 내년 올림픽을 겨냥해 광주주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21세 이하 주축으로 꾸릴 예정인데 와일드카드 사용에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아시안게임에는 규정상 23세 이하 선수들만 출전할 수 있으나 3명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뽑을 수 있다.
홍 감독은 “A대표팀 선수가 기량이 나온 게 사실이지만 어린 선수들과 호흡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와일드카드의 장단점이 있다. 일단 쓰기로 한 만큼 꼭 필요한 포지션에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선수가 고려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양주 월드컵에 출전한 23명 가운데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는 공격수 박주영(25·AS모나코)과 염기훈(27·수원), 이승철(21·FC서울), 미드필더 기성용(21·셀틱), 김보경(21·오이타), 김재성(27·포항), 수비수 조용형(27·제주), 김동진(28), 오범석(26·이상 울산), 이정수(30·가시마), 강민수(24·수원), 김형일(26·포항), 골키퍼 정성룡(25·성남), 김영관(27·울산) 등 14명이다. /연합뉴스

정해상 심판, 브라질-네덜란드전 부심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포청천’으로 나선 정해상(39) 심판이 2일(이하 한국시간) 오후 11시 포트엘리자베스 넬슨 만델라 베이에서 치러지는 네덜란드와 브라질의 8강전 부심으로 나선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8강전에 투입될 심판진을 발표한 가운데 정해상 심판은 니시무라 유이치(일본) 주심, 사가라 토루(일본) 부심 등과 함께 네덜란드-브라질 경기에 배정됐다.
정해상 심판은 우루과이-프랑스, 스페인-온두라스 경기 등 조별리그 두 경기에도 니시무라 주심 및 토루 부심과 함께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월드컵에서 한국인 심판이 8강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006년 독일월드컵 때 부심으로 나선 김대영(50) 심판은 조별리그 두 경기와 3-4위전에 나선 바 있다. /연합뉴스

태극전사 이젠 ‘수호천사’

한국 월드컵 출전 사상 처음으로 원정 16강 진출 쾌거를 이룬 태극전사들이 이번에는 다문화 가정의 ‘수호천사’로 깜짝 변신한다.
실업축구 내셔널리그 안산 할렐루야(단장 이영무)는 오는 3일 오후 5시 경기도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대표팀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정용(볼턴), 박주영(AS모나코), 이영표(알 힐랄), 기성용(셀틱), 이동국(전북) 등 월드컵 16강 주역들이 망라된 올스타팀과 할렐루야 축구단이 자신경기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올스타팀에는 이들 외에 수비수 이정수(가시마), 조용형(제주), 김동진, 오범석(이상 울산), 공격수 이승철(FC서울), 골키퍼 정성룡(성남), 김영관(울산)도 참가한다.
이와 함께 스코틀랜드 셀틱FC 일단 테스

트를 앞둔 ‘로봇맨’ 차두리(프라이부르크)와 국내 K-리그에서 뛰는 최태욱(전북), 유병수(인천), 아깝게 월드컵 최종 엔트리 23명에서 탈락했던 이근호(이와타), 프랑스 리그1 발랑시엔에서 활약하는 김민식도 올스타팀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 4~5명도 올스타팀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당 구단과 협의 중이다.
월드컵 16강 멤버들이 총출동하는 대표팀급 구성이다. 이날 자신경기에는 안산지역에 사는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을 초청하며 행사 수익금 전액을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자신경기를 준비한 할렐루야는 1980년 한국 최초의 프로팀으로 출범했고 이번에 창단 30주년을 맞아 뜻깊은 행사를 기획했다.
평소 불우이웃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이

다문화 가정 초청

안산서 내일 자신경기

영표 등 태극전사들은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한 뒤 황금 같은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흔쾌히 자신 축구경기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영표는 “첫 원정 16강 진출 쾌거는 국민의 응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다. 월드컵을 통해 받았던 국민의 성원과 사랑에 어떻게 보답할까 고민해왔다. 해외에서 외국 선수라는 이유로 겪은 고충이 있기에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다. 그들을 위로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는 자신경기를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입장권 가격은 일반석(3만3천석) 1만원, 특별석(2천석) 2만원이며 2일부터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할렐루야 축구단(031-485-4641~2), 구단 홈페이지(www.ashfc.com) /연합뉴스